

제자: 마스크에 사부님 사진을 싣는 것은 적합합니까?

사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웃으심)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 『북미 순회 설법』 중에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부: 무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는가?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 현재 중생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장래에 누구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일체 능력이 있으며, 나는 일체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를 뭐라고 불러도 다 정확하지 않은바, 부동한 중생이 장래에 나를 보게 되면 모두 부동한 그들 민족의 형상인데, 일체는 나로 이루어진 것이나, 나는 또 일체 중에 있지 않는데, 바로 이런 개념이다. (웃사람 웃음 박수)

제자: 현재 세계각지에서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류의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증은, 사존님께 여쭙는데, 이 현상은 정법 노정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인류의 업력이 너무나 커져서,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각 방면에서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의 기타 층차와 똑같아서, 한 층 한 층의 진상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인류가 아니게 되며, 여기는 바로 신의 세계인즉, 최저한도로 이는 가장 낮은 한 층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장 낮은 이 한 층 사람의 생명이 아닌, 바로 이러한 하나의 관계이다. 오늘의 대법제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할 수 있었고, 온갖 풍우 속에서 이 몇 해를 걸어올 수 있었는데, 장래에 당신들은 그 일체를 보게 될 것이다. 소중히 하라, 여러분은 반드시 당신들이 이미 걸어 지나온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잘 걸어야 한다. (박수)

제자: 자비 중의 ‘비(悲)’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사부: 글자를 풀이하는 것은 내가 대법을 전한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너무 작으며,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두 구절을 선사하겠는데, “비(非)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이 있으면 비(悲)가 아니다 (無非是人心, 有心不是悲).”

인류 사회에서, 긴긴 세월 중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데, 중국 거기는 이 역사라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였고, 몇 천 년 이래 부단히 사람들에게, 장래에 법을 얻는 그 순간에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문화, 사유(思

維), 행위, 생활상태, 법, 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고 있었다. 이 미혹 속에서 집착심에 이끌려 진상을 볼 수 없지만, 오직 법 공부 중에서 정념이 생기기만 하면 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창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이다. 정말 많은 공을 들여, 오늘날의 이러한 인류를 육성해 냈다. 그러나 구세력이 교란함으로써, 이것은 이미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게 되었는데, 나는 다만 선용(善用)할 뿐이다. 많은 백인 수련생, 흑인 수련생, 기타 민족 수련생들은 오늘날 중국 대륙의 그 환경 중에 있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바, 역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사람마다 모두 중국 대륙 거기서 걸어 나왔다. (박수) 당신의 사유는 오늘의 중국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당신은 역사상에서, 당신은 이미 그러한 사상을 다졌으며, 생명의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날 전한 이 한 부의 법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다. 표면 문자는 모두 다르지만, 내포는 같은 것이다. 당신은 법의 내포를 알 수 있고, 법의 내포를 체득(體會)할 수 있으므로 수련 중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비’를 말하면 바로 인류에게 문화를 다져주는 중에서 육성한 것이다. ‘자비’는 사람의 감정을 초월한 신의 그 상태의 표현을 형용한 것이다. 물론, ‘자비’ 이 두

된 후 고층 공간의 요소와 생명의 불순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한 것이다. 나의 이전의 몇 차례 설법을 한번 보라.

제자: 명후이왕은 진상을 밝히는 중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외 수련생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합니까?

사부: 명후이왕이 진상을 밝히는 중에서의 작용은 대신할 수 없으며, 그곳은 우리가 박해 진상과 대법,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형세를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다. 대법제자의 일이라, 여러분은 모두 잘 협력해야 한다.

제자: 근래, 저는 어떤 수련생이 자신이 이미 원만하였다고 자칭하며, 다른 법문(法門)으로 바꾸어서 수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가 사오(邪悟)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망상한 것입니까?

사부: 나는 그가 열이 나서 그런다고 말한다. (웃음) 발열하여 흐리멍덩해졌다. 사실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미 아주 위험하다. 이지와 정념이 청성(清醒)하지 못한 사람은 신이 가장 멸시하는 생명이다.

할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사부: 안 되는바, 꼬마 제자 이외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아주 바쁠 때 사용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습관화되면 안 되며 이는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법 공부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법 공부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바쁠 때 한번 이용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며 또한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 제자는 물질의 불순(不純)과 변이(變異)의 차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사부님께서 대답해주세요.

사부: 물질의 불순과 변이가 바로 구(舊) 우주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며, 구(舊) 우주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성주괴멸은 그 당시 법의 지혜의 극한이며, 부동한 국부에 대한 주기적인 정화방법이며, 총체적으로 그 일보로 나아가면 바로 완결된다. 물질의 불순과 변이를 인류사회 여기에서 보면, 현대과학이 가져다준 공기·토양·금속·물(水)과 각종 원소의 불순을 인류는 해결할 수 없다. 인류 사상의 변이는 신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인류가 아니다. 우주의 일체는 순환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고층생명에 의해 추출

글자는 현재 속인 사회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현재 문화의 혼란이 조성한 것이다. 사람은 신을 믿지 않게 되었고, 수련을 모르게 되었으며, 사람은 감히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신을 비방하고, 수련 중의 용어를 속인 중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속인 중의 용어가 아니며, 다만 속인이 가져다가 사용했을 뿐이다.

제자: “전 국민이 모두 그것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사부: 천기는 너무 일찍 누설할 수 없다. (웃으심) (못 사람 웃음, 박수) 나는 이전에 당신들에게,法輪功(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파룬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오해를 조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은 파룬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그 마의 우두머리를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실히 그렇지 않은가? (박수)

제자: 최근 한동안의 시간에 제자는 항상 일종 강대한 요소와 대항하고 있는데, 조금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지며, 심

신이 있어 본 적이 없이 피로합니다.

사부: 발정념으로 흑수를 제거하라. 현재 대법제자가 오직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표현되어 나온,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란은, 틀림없이 흑수가 한 짓이므로, 소제(消除)하는 중에서 반드시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늦게 얻었거나 늦게 나온 수련생, 당신의 수련과 법을 실증하는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함께 있으므로, 당시의 압력이 더욱 커 보인다. 물론 수련이라, 오직 정념이 좀 강하기만 하면, 보증하건대 당신은 모두 넘어갈 수 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데, 사람은 수련 전에 업력이 있어서, 수련 중에 소업해야 하는바, 소업하면 바로 고통이 있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빚진 업력인데, 사부가 당신에게 전부 없애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무런 업력의 빚을 갚지 않고도 가서 신이 된다면, 신이 당신을 보아도 눈에 거슬려 한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당신이 빚진 그런 부채를 당신은 다 갚았는가? 당신의 사부가 당신에게 없애 준 것이고 당신을 대신하여 갚은 것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물론 안 되며, 그러므로 수련은 일정한 고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하면, 중국 대륙 이외의 수련생, 당신들이 겪은 고생은 역사상 수련인들이 겪은 고생과는 차이

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수련하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진수(眞修)가 아니다. 수련은 어떠한 조건도 없다.

제자: 대법제자가 조성한 그 한 층의 우주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인데, 사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부: 나는 당신들에게 길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지금 모두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웃으심) 사람의 일념은 능력이 없으므로, 내보낸 것은 순간 풍선 같으며 작디작아, 그것은 금방 흩어진다. 대법제자가 내보낸 것은 아주 강렬한바, 층차가 높을수록 생각해 낸 것이 더 강하고, 더 크며, 시간이 더 길게 지속한다. 하나의 거대한 신, 그의 일념이 천체우주를 생성할 수 있다. 사실 또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법은 원용한 것이며, 과거 우주의 불건전한 요소를 이번에 정법 중에서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그가 하나의 원용한 법이라면, 성주괴(成住壞) 우주의 근본 특성마저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사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개념이 아니다.

제자: 최근 동수들이 자주 전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교류하고 법 공부하며, 심지어 극력 보급합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하고 법 공부

조금 전에 한 신이 말하기를, 보아하니 그들은 후사를 준비할 기회밖에 없구나 하였다.

제자: 당신께서는 세 가지 일을 잘하면, 일체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부딪히는 일체 집착과 모순이 모두 선택 되는 것을 포함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부님의 개시(開示)를 바랍니다.

사부님: (웃으심) 한 사람이, 수련 속에서 당신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련을 논할 수 없다. 무엇을 수련이라고 하는가? 수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속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속인 속에 있지 않을 때, 속인의 각종 모순과 집착, 각종 요소가 당신에게 여전히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수련해낼 수 있는가, 당신이 정진할 수 있는가, 당신 수련의 빠름과 느림, 이것은 모두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나, 이 사부로서 당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책임지는데, 그러나 당신이 정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여전히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하나의 신이 속인 속의 각종 집착에 이끌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며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달렸다. 당신이 나는 이 문제

가 너무나 크다. 그때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오늘날은 것처럼 고생스럽지 않다. 오늘날은 어디가 고생스러운지 당신들은 아는가? 과거에는, 사람의 그 신체와 정신이 모두 고생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지금 다만 집착을 내려놓지 못할 때 고생스럽다. 당신들의 고생은 모두 당신들이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느끼는 고생인데 -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나를 좋지 않게 대하는가? 나의 신체는 왜 늘 소엽하는가? 라고 한다. 사람은 좀처럼 내려놓지 못한다. 최대한도로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하나의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만약 정말로 어떠한 정황 하에서도 모두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을 속인과 같지 않은 대법제자로 대할 때라면, 나는 그 일체가 모두 양상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수련생들은 모두 깊은 체득이 있으며, 그들은 이 일체 속에서 걸어 지나왔다. 그러므로 신수련생들은 노수련생들에게 이런 방면에서 많이 묻고 가르침을 청하고, 이전에 내가 말한 법을 많이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상당히 많은 해답이 있다. 그밖에 최근 삼계에 비집고 들어온 나쁜 신(혹수)도 직접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많을 때에는 그것들이 한 것이다. 발정념 중에 그것들을 소훼(銷毀)하여, 교란을

배제하라.

제자: 은사께서 저를 구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빛을 많이 저서, 각종 속인의 마음과 집착심으로, 매우 조급한데, 사존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부: 나는 당신을 구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위해 당신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바, (웃음) 나는 다만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나는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을 빚져,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하지 못하는데, 스승님께서 저를 도와 돈을 벌게 해주어 이 돈을 모두 갚게 되면,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알려 주는바, 당신 그것은 수련이 아니며,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수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이 쪽의 것이 아니면 저쪽의 것으로, 모두 겪어야 할 고생이 있는바, 바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할 수 있다면, 일체는 아마 모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수련은 오히려 실재적이고도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나는 수련하고, 나는 날마다 연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오직 연공만 하고 있다면,

금 반작용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대법제자들이 단련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악인의 무슨 재간이 아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여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사람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을 했다면 오히려 모두 갚아야 한다. 이는 틀림없는 것이다. (박수)

그러나 나는 또한 집착심 있는 수련생의 틈을 타는 특무가 정말로 아직도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련생이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집착하여 조성된 것이다. 머리가 청성하지 못한 일부 수련생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조금 전에 나는 바른 일면으로 이 법을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알고 있는바, 사부가 거듭 기회를 주는 동시에, 또 사부가 거듭 베푸는 자비를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는 몇몇 사람이, 줄곧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고 대법제자를 배신하는, 특무 수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 또 한 번 사악에 이른바 정보를 제공하는데, 행위상에서 대법에 가져다준 부정적 영향은 신의 눈에서 볼 때 이미 갚을 길이 없다. 정법에 대한 교란에 참여한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이번 박해에 참여한 것으로서, 후과는 대법제자를 박해한 중국의 그 사악한 깡패집단과 똑같다. 지금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미 할 말이 없으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에는 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말하자

지 못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특무가 치고 들어 오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수련이다. 그들은 수련생을 이용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이른바 정보를 제공하며, 목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다. 그런 특무 기관은 法輪功(파룬궁)이 무슨 비밀이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파룬궁은 모두 좋은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으며, 바로 이번 박해를 반대하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모두 알고 있다. 깡패 수단 속에서 성세를 만들고 형세를 만드느바, 중국은 운동을 펼치면서 습관이 되었는데, 그들은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아는데, 일종 무슨 성세를 조성하여, 사람 마음을 교란하려고 하였다. 수련자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이 몇 년이 지나면서 대법제자는 갈수록 견정해지고, 이지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박수) 누가 너에게 겁을 먹는단 말인가? 없다. 그렇다면 사악한 박해에서, 중국 대륙에서 그 대법제자 중에 누가 너에게 겁을 먹는단 말인가? 물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그것 역시 구세력이 고의적으로 배치하여 들어오게 한 것이다. 나는 중생은 모두 법을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두 바른 일면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구세력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

나의 이러한 일을 사부님께서 모두 없앨 수 있으며 모두 개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감추고 있는바, 당신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개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락이 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집착이 감추어져 있으며, 자신을 속이지만, 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나의 수련인이 될 때, 진정으로 정정당당한 대법제자로 될 때, 일체는 모두 개변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황은 흑수들이 교란하고 있는 것인데 정념 중에 엄숙하게 교란을 제거하라.

나는 또 말하는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최근에 많은 수련생은 일부 수련생이 사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런 것을 나는 모두 양해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바, 구세력의 각종 요소와 우주가 정법을 아직 끝마치지 않은 그런 생명, 그것들은 양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은 이 한 점을 틀어쥐고 그것들이 하려고 하는 짓을 할 것이다. 내가 그 해 대륙에서 법을 전한 그 한 기간 시간에 이 방면의 일이 아주 많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사부에 대해 존경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꼭 그를 밀어 반면으로 가게 했다. 생명은 모두 법을 위해 온 것으로, 하나는 바른 일면(正面)의 작용을 일으키고, 하나는 부면(負面)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부면의 작용을 일으키는 생명은 최후에 모두

소멸하게 되는바, 그러므로 수련생이 이러한 것을 보고는 기어코 그 사람을 대립 면으로 밀고 가, 그때부터 그로 하여금 있는 힘껏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아주 위험하다. 그러므로 일단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면, 구세력은 즉시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치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의 거대한 업력은 그의 사부가 제거해 주었고 그를 대신하여 감당했으며, 이미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의 그런 생명을 건져 내어 신이 되게 하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체를 정말 그에게 주었다. 그것들은, 그가 감히 그의 사부에 대하여 이렇게 한다고 여겨, 그를 대립 면으로 밀고가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최후에는 휘멸되게 한다.

물론 나는 구세력의 이런 배치를 승인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가급적 수련생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난(難)은 당신이 해탈해 나오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나는 갑자기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의해야 하는바, 바르게 가지 않는 어떠한 길도 모두 위험한 것이고 모두 험난한 것이다.

나 혹은 어느 수련생이 일시적으로 넘지 못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밀어내거나, 혹은 다른 눈으로 대하여, 정말로 그의 천만 년의 기원이 훼손되어, 반면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박수)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 만약 매 한 명의 대법제자가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 이 자비의 힘에, 그 좋지 못한 요소가 또 머무를 곳이 있겠는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전문적인 그 특무는 들어오지 못한다. 모두 99년 이전에 이런 직업을 가졌던 수련생으로서 잘 수련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 사악에 일시 타협한 수련생이 잘하지 못하여 비로소 표현된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법을 파괴하라고 하여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일시적으로 흐리멍덩하고, 잘하지 못하고 관을 넘지 못하였을 때, 길을 잘못 걸은 것이다. 또 어떤 대법제자들은 자신의 고만한 것들에 집착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깡패 특무기구에 좀 대처하고자 하였다. 사실 당신이 누구에게 정말로 대법을 파괴하라고 해도 모두 불가능하다.

바로 일부 수련생들에게 아직도 사람의 집착과 아직 잘하



제자가 잘하지 못하면 대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 이 박해 속에서, 그 사악한 깡패집단은 대법제자를 이용하여 대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내가 말한 뜻의 전제는 대법제자가 진정으로 수련하고 있지만, 수련 중에서 법리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철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걸어 조성된 좋지 못한 영향은, 사실 또 사람 여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 대법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해 속에서 반면으로 나아간 이들은 이미 대법제자가 아니지만, 돌아올 수 있는 이는 별도로 취급한다. 대법제자가 아니라면 그럼 근본적으로 박해하는 사악의 한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은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고의적으로 파괴를 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데, 이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법을 파괴하지 못했고, 오로지 대법제자로 하여금 더욱더 이지적이고, 더욱더 생각이 바르며, 더욱더 청성(淸醒)하고 명백해지도록 할 뿐이다. 이번 박해의 결과는 바로 이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성숙되지 않았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대법제자 자신이 잘하지 못함으로써 세간에서 좋지 못한 작용과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대법제자가 속인 마음이 있어, 잘하지 못하고, 이전에 특무를 하였거

제자: 저는 7개월 전에야 법을 얻었는데, 저도 정법제자입니까? 법정인간 시기일 때 저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부: 나는 당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집착이 있다. 당신이 신수련생이든 노수련생이든, 당신이 어떤 제자에 속하든지, 당신이 오늘날 대법수련의 문에 걸어 들어왔고, 당신이 진정한 수련의 대문에 들어왔다면, 아무것도 집착하지 마라. 사람 마음의 일념이라도 모두 제고를 저애하는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수련 중에는 “유심수련, 무심득공(有心修煉, 無心得功)”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은 수련할 수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수련이 빠르고, 제고가 빠르며, 마난(魔難)이 적다. 오직 집착이 있기만 하면, 수련은 더디게 된다.

자신이 정법시기 제자인지 아니면 장래의 제자인지 상관하지 말며, 당신은 이미 수련 중으로 걸어왔고, 당신은 이미 무수한 중생이 부러워하는 생명이 되었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길만 잘 걸어가라. 한 생명이 우주 중에서 무엇을 했던지 모두 보응이 있을 것이며, 좋은 것을 해도 보응이 있고, 나쁜 것을 해도 보응이 있는데, 수련도 물론 보응이 있는바, 과위를 실증한 과보(果報)가 있으며, 이것은 우주 중의 절대적인 이치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지도 상관하지 말며, 할 수 있고 수련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수련하라.

제자: 스승님, ‘선해(善解)’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선해라, 나는 우주의 생명이 정법 중에서 법에 동화되는 한 가지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은 선해할 가치가 없는데,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그렇게 처리한다. 정법에 죄를 범한 어떤 생명은, 더욱이 선해할 수 없으며, 정법이 한번 지나가는 중에 청리해 버린다. 선해하는 생명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를 동화시켜 준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또 이 선해를 초과한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는 주동적으로 수련하고 있고, 자신이 미래를 향해 수련하고 있기에 선해보다 더 진귀하다.

제자: 프랑스 전체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프랑스에는 정신이 정상이 아닌 수련생이 있는데, 그가 이전에 중국 관광객에게 자료를 배포할 때 자신을 통

나의 이 말, 나의 이 방법은 이미 앞서 했지만, 이 몇 년 동안 우리 수많은 수련생은 아직도 사부가 말한 이 말의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문을 모두 열어 놓아, 어떤 직업계층의 사람이든 모두 그더러 들어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은 왜 자신이 인위적으로 기어코 줄을 긋고, 기어코 선을 긋는가? (박수) 사람이 수련하지, 신이 수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수련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서 사람 마음이 있으며, 사람 마음에는 직업적 습관이 있으며, 직업이 조성한 집착과 양성된 습관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모두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였을 때 그 일 중에서 조성된 습관적인 집착이 반영되어 나올 수 있다. 그럼 물론 간첩이나 특무를 할 때의 그의 습관도 반영되어 나오며 심지어 관을 넘지 못할 때, 일을 잘못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법제자가 박해당하는 중에서 그가 어느 한 관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흐리멍덩하여 그는 가서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할 때, 이 사람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제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그의 일시적인 것으로는 알 수 없다. 남들의 착오를 허용해야 하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법의 위대한 점이다. (박수)

나는 과거에, 누구도 대법을 파괴할 수 없고, 오로지 대법

나뻘을 말할 수 없으며, 이 생명은 구도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법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하였다. 나는 역시 이렇게 하였는바, 직업이나 사회계층으로 선을 긋지 않았으며,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모두 구도하였다. 나의 문은 열려 있고, 전부 열려 있으며, 열려서 문이 없는데, 당신이 오로지 수련하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나는 누구든지 제도하는 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는 사람 자신의 마음이며, 법을 얻고 얻지 않고는 개인의 일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인류가 직업을 선택하면서 자신을 파악하기 몹시 어렵기 때문인데, 일생 중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듯이 어디 그렇게 쉬운 것이 있는가? 몹시 어려운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보았으며, 사람은 또한 모두 법을 위하여 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모두 당신을 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정하게 수련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당신이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는 역시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제하지 못하여, 수많은 중국 관광객 앞에서 크게 떠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대사관 앞에서 발정냄을 할 때 함부로 움직이고, 또 이미 중국대사관 건물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부: 이런 일은,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 수련생으로 말하면, 대법제자로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며, 우리는 다만 선념에 입각하여 중생을 구도할 뿐인바, 이지적이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어떤 수련생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수련생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이므로, 여러분은 서로 협조해야 하며, 유사한 일이 다시 나타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수련생에게 권유하여 혼자 집에서 연공 하도록 하라. 사부는 마찬가지로 책임질 것이므로, 나올 필요가 없다. 만약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자: 우주의 일체는 모두 정수(定數)가 있으며, 일부 생명은 멸망하기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한 점을

결정하였습니까?

사부: 우주의 일체에 모두 정수가 있음은, 우주의 정체(整體)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구(舊) 법리는 그 성주괴멸(成住壞滅)의 정수(定數)를 정하였고, 이것이 그 구법(舊法)의 지혜의 극한이다. 비록 우주에는 그의 이러한 정수가 있지만, 구체생명의 근본이 비록 그와 역사적 관계가 있지만, 어느 생명인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그에게 얼마만큼의 업력이 있으면, 그는 갚아야 하는데, 그가 업력이 크면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모두 생명 자신의 일이며, 이 생명 자신이 어느 일보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행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우주 중에서의 다음 일보, 다음 일보, 또 다음 일보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공간의 시간환경을 떠나서, 다른 시간 환경 속에서 그가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그의 오늘날의 상태에 따라 그 일보까지 연속된 것이다. 만약 그의 지금의 상태가 갑자기 변하였다면, 그다음 일보의 상태 역시 변하므로, 이것은 불안정한 것이다. 우주의 성주괴(成住壞)의 총체적인 정수는 안정된 것이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박수)

제자: 만약 동수에게 특무(特務)로 오인 받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나는 이 특무에 대해 좀 말해 보겠다. (웃으심)(웃사람들 웃음). 사실은, 당신들은 사부가 다른 한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물론 구세력(舊勢力)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은 대법제자를 고향하려고 겨냥한 것인데, 사실 내가 말한다면 법에 대한 치욕이자, 인류에 대한 수치이며, 법에 대한 불경이고, 정법에 대한 교란이어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 안 되어 비로소 정법 하는 것이며, 인류에게는 필경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업종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을 선발하여 특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크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 누군가가 총명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 사람의 직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무를 하는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다. 인류사회의 직무가 다르므로, 이 사람의 좋고

서 낱말이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부딪힌 문제는 또 당신들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 역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제자: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공법시범을 하는데, 진상을 똑똑히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부: 공법시범은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들이 한 어떤 일든지 모두 일정한 바른 일면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진상을 알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법만 한다면, 사람에게 있는 풀지 못한 수많은 사상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자: 중국 윈난 시쌍판나(雲南西雙版納), 베이징 칭화대학(北京清華大學), 간수 짜위관(甘肅嘉峪關), 허베이(河北), 광둥(廣東), 뉴질랜드, 페루, 텐진(天津), 캐나다 몬트리올, 창춘시(長春市), 베이징(北京)시, 선양(瀋陽), 하얼빈, 스촨 리산(四川樂山), 어메이산(峨眉山), 광저우(廣州), 정저우(鄭州), 무단장(牡丹江) 이상 지역의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제자: 대법제자는 연분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아주 큰데, 그 연분의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부: 연(緣)을 나는 『전법륜』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 여러 차례 설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대법제자의 연분은 더욱이 말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대법제자에게는 세 가지 정황이 있다. 내가 볼 때, 반복하지 말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나는 잠시 이런 문제들을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웃으심) 나의 이전의 설법을 찾아서 한번 보라.

제자: 아주 많은 동수(同修)들이 사람의 이 한 층의 법을 원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부: 사람의 이 한 층을 원용한다? 이 말은 맞지 않다. 만약 잘하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수련문제로서 이런 원용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 선천 근기 혹은 근기의 국한(局限)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사부: 수련함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당신은 근기가 어떠한지 상관하지 말라, 오늘날 한 생명이 대법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음은 근기가 낮지 않은

것이다. 세인들을 보라, 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는데, 정법 시기의 대법제자는 몇 사람인가? 당신은 오히려 그 속의 한 사람으로서, 또 무슨 근거를 말하는가? (박수)

제자: 정체(整體)에서, 만약 어떤 항목의 협조인의 관념이 중하면, 어떻게 진일보로 협력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 대법제자 매 사람이 모두 수련하고 있고, 매 사람이 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매 사람 역시 속인 마음이 다 있으므로 비로소 수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속인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는데, 모순이 있고, 이의가 있다고 여겨 수련생들과 협력하지 않으려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상태에서 걸어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사람마다 가끔 역시 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서로 도와주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공동으로 대법제자로서 법을 실증하는 일을 잘하는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제자: 대법제자가 없는 그런 국가는 장래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멀고 먼 국가를 향하여 어떻게 홍법하고 진상을 알려야 합니까?

모두 더 높고 더 멀리서 왔을 것이다. (박수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짐) 단지 내가 온 것이 좀 더 멀 뿐이며,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정법 속에서 나는 누구든지 제도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하자면, 우주의 중생을 놓고 말한다면, 내가 온 높고 낮음은 이미 긴요한 것이 아니며, 내가 최고 최후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비로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내가 이 대법을 전하기 위해 왔으며, 이 대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에게 체계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알아,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변호사를 불신임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인류사회는 인류 자신에 의하여 붕괴되어 공간이 아주 작아졌으며, 사람의 지혜는 국한성이 있으며, 수많은 틀이 사람을 가두어 버렸다. 아주 많은 일은 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졌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주 어려워졌다. 지혜롭게 이런 것을 대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면, 진상을 알리는 그것은 물론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본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행하라.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부딪힌 어떠한 일이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

에서 마찬가지로 업을 빚으며, 근대 인류는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 더욱 미혹되게 하는 문화를 만든즉슨, 이렇게 한 개의 아주 물질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배양해 냈다. 사람이 이 인식을 초월하려면 무척 어렵고, 사람이 이 일체 이위를 인식하려면, 오로지 수련해야 비로소 해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부동한 신이 부동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몇 천 년 동안, 각종 종교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전파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만든 신은 아주 상심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사람이 믿는 그 신은 또 다른 신이 만든 사람을 제도할 수 없었다. 또 아주 많은 민족은 자기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유사 이래 이러한 현상이 아주 많았고, 이 때문에 사람을 만든 신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민족은 뿌리가 없는 사람·책임지는 신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회의 변란·이지의 상실·신에 대한 불경은 대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러한 민족과 개인은 모두 아주 빈곤하다.

사부가 왜 더 높고 더 멀리서 왔다고 하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대법제자 역시

사부: 대법제자는 바로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당신들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당신들이 가서 할 수 있으며, 대법제자가 없는 곳에 당신들이 가서 홍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難度)이 너무 큰 것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중국 사악한 깡패집단과 너무 가까운 곳에는, 당신들은 현재 잠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일보에 또 다음 일보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 만약 미래의 중생이 다시 패괴(敗壞)된다면, 또 정법이 필요합니까?

사부: 아마도 이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만약 이 우주의 중생이 더 패괴(敗壞)되어 내려간다면 정법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법의 출현, 이 일의 시작이, 마침 우주중생과 인류가 모두 안 될 때이고 도태되어야 할 때이지만, 구원을 바랄 수도 없을 지경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바로 이때에 법을 전한 것이다. 만약 정말로 지옥에 내려갈 생명처럼 그렇게 나쁘다면, 물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또한 구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더는 제도할 가치가 없다.

제자: 만약 로켓이 9대 행성 범위 밖으로 날아 나간다면,

그것은 삼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단지 분자입자 한 층으로 구성된 범위일 뿐, 이 삼계의 범위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몹시 어렵다. 내가 현재 여러분에게, 삼계가 얼마나 크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감각과 시각으로 동일한 층의 입자 중의 관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과 사람이 우주를 볼 때 최대의 다른 점은, 신은 이 한 층의 입자의 구조에서 보지 않고, 그 이하의 각 층 입자와 이상의 각 층 입자에서 동시에 우주구조의 조합상(組合上)의 전 방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는바, 그는 물체의 우주의 부동한 층차 중에서의 총체적인 구성표현을 볼 수 있고, 근본에서부터 무슨 모양인가를 본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분자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이 세계, 단지 이 한 층 입자로 구성된 이 일체만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주는 단지 이 한 층의 입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상을 볼 수 없고, 사람은 오직 이 한 층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종류의 요소의 간격·억제와 사람의 눈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인데,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이러한 일종의 가상을 조성한 것으로,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바로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것조차 사람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바, 바로 사람에게 이러한 일종의

인 아주 많은 것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데, 사람은 긴긴 세월 속에서 한 세대 한 세대로서, 사람은 신이 사람에게 만들어 준 문화 내포를 연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성(理性)상에서는 모르는 것이지만, 내포 속에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에 이르러, 법을 위하여 온 수많은 중생이 사람으로 전생할 때, 원래 신이 만든 사람의 그 元神(웬선)은 저승(陰間)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고층 삼계 밖에서 온 신은 사람으로 전생하여 이 옷(인피)을 입었는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신이 만든 인피를 다른 신이 입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신은 사람을 만든 이 신보다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고, 아마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며, 물론 그보다 낮은 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동등한 층차의 이가 와서 그가 만든 이 사람을 주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이 원래 사람을 만든 신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늘 지금의 사람은 모두 내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 중에서 당초에 신이 만든 그 元神(웬선)은 몇몇 안 된다. 누가 이 미혹한 세계에 들어갔던지 간에, 접촉한 눈으로 본 일체는 바로 이러한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렇게 이 세계를 본다. 그렇다면 이 미혹한 사회 속



모두 한 가지 인종이 아닌 것으로 여러 몇몇 신들이 만들었다. 황인종도 몇몇 신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기타의 사람, 예를 들어 인도사람, 그리고 고대 이집트 사람도 모두 부동한 신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모방하여 사람을 만들었다고 여기는데, 사실 그 신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바, 그가 만들어낸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의 가장 낮은 일부분·최하 한 층의 입자에 불과하다. 명백히 말하면 바로 신의 발아래의 한 개 입자이며, 세포라고 불러도 괜찮다. 나는 전에 설법에서 당신들에게 생명, 사람·동식물을 포함하여 매 한 개의 세포는 모두 주체의 형상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 만들어낸 사람은 그의 元神(웬선)과 생명의 일체마저 모두 삼계 내의 물질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한 사람을 만든 신은 물론 자신의 사람을 책임지려고 한다. 줄곧 근대에 이르러 대법을 전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자, 인피(人皮) 속의 아주 많은 元神(웬선)은 고층에서 내려온 생명이며, 더는 원래 사람의 그 元神(웬선)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람 표면의 한층 입자로 구성된 일체를 인피라고 부르며, 사람의 뼈·내장과 표면 피부를 포함한다. 사람 이 표면의 인피는 노화로 말미암아 죽지만, 이 표피가 일생 중에서 받아들

눈을 만들어 주어 우주에 대한 인식을 국한하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것으로, 일체는 모두 목적 있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적외선·자외선 그리고 기타 볼 수 없는 빛,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의 과학계기로 가히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오히려 볼 수 없다. 즉, 인간 세상 이 한 층 속의 것마저도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다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람이 어떠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의로 정한 것으로, 사람의 인식을 이 상태 속에 고정했다. 사실은 또 절대적인 고정이 아니라 초월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으로, 수련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돌파하고 우주의 진상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수련인의 층차를 보아야 한다. 반대로, 사람이 더 물질적일수록 더욱 이 미혹 속에 빠지고, 더 물질화될수록 사람의 사상인식도 더 이 ‘현실’ 속에 빠지며 사람은 더욱더 이 ‘현실’ 속에 있게 된다.

삼계의 더 큰 변두리는 소우주와 같이 크다. 삼계의 미시적인 변두리는, 사실 미시적인 데서 볼 때, 지척에 있어도 멀다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시적인 입자가 그 미시적인 입자보다 한 층 더 큰 입자를 구성하였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하여 부동한 층차의 입자 모두 다 아래의 한층 작은 입자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계의 변두리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일체 속에 있으며, 일체 물질의 미시 중에 있는 것으로, 현대인의 사상으로 인식하면 거리가 없는데, 당신은 그것의 거리를 거의 계산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삼계를 구성하는 부동한 층차의 입자에는 도리어 부동한 층차의 범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평면에서 부동한 층차를 볼 때 역시 부동한 층차의 변두리 거리(距離)가 있다. 그러나 우주, 그것은 또 한 개의 상당히 복잡한 체(體)인바, 우리가 말하는 삼계는 장래에 정법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어서 정한 한 개의 범위이다. 그러나 삼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똑같은 입자 상태로 연결된 또 더 광대한 공간이 있는데, 아주 많은 최후의 고층 신은 또 모두 그것을 가장 낮은 층차라고 부른다. 우리가 가리키는 삼계는 이 특정된 범위이다. 또한, 삼계와 동등한 입자로 구성된 기타 서로 이어진 공간, 그것의 범위는 비할 바 없이 거대하다.

제자: 무엇 때문에 대법제자는 당신을 주불(主佛)이라고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더 높고 더 먼 곳에서 왔습니까?

사부: (웃으심), 사실 나는 명칭이 없다. 나는 단지 한편의 경문에서 ‘주불의 자비’라는 한 마디를 적었더니, 수련생은 사부님이 주불이 아니신가 하고 추측하였다. 사실 무엇이라고 불리든 모두 정확하지 않은바, 매 사람의 생명마다 우주 중에 모두 하나의 내원(來源)한 곳이 있고, 동시에 더 멀고도 먼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가장 낮은 층차의 그런 생명을 포함한다. 바로 지상의 풀 그것들도 모두 하나의 내원한 곳과 더욱 먼 요소가 있다. 부동한 역사시기에 부동한 식물이 있고, 긴긴 우주역사 중에서, 성구(星球)와 입자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그다음 재생되고 해체되고 재생되며, 끊임없이 갱신하는데, 우주 중의 수많은 먼지는 아마도 상당히 멀고도 먼 요소가 해체된 생명일 수도 있다. 바닥에 떨어진 흙 중 많은 것은 아마도 상당히 멀고 먼 물질의 것일 수 있다. 아울러 그 풀은 이 흙 속에서 물질을 흡수하는데, 아마 그 풀도 부동한 멀고 먼 요소를 지녔을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표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한 개의 물체도 모두 생명이 있는데, 오로지 그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성경』 중에서 여호와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여호와가 만든 것은 백인 중의 한 종(種)이다. 모든 백인이 아니다. 백인 역시